

## 모 두 말 씀

2017. 11. 9 (목) 08:00~09:30

한국거래소 회의실 (19층)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 I .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생기는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첩함(agility)은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현명하고 민첩한(AGILE) 투자자들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하지만 과감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회계(Accounting) 개혁과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선진화,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적  
관점의 성과(Long-lasting Earnings)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졌고, 최근 코스피 지수도 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변화 속도가 느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는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그 과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깨어나가야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II. 회계 개혁 (Accounting Reform)

---

지난 9월에는 한국의 회계제도에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회계개혁 법률안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회에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계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회사별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협회에 등록·

교육 등 관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업계는 전면적인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도입을 준비하면서, 감사품질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독의 보완수단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거래소는

이러한 큰 변화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오늘과 같은 자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Ⅲ.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15년에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IV.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영국에서 발간된 “Kay 리포트”에서는  
영국 주식시장의 실패요인을  
“단기주의(short-termism)”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권 행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참가자들과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코드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IV. 맺음 말

---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회계 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근본적인 혁신**을 해 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숨은 기회를 포착해 내는  
**“현명하고 민첩한(agile)” 투자자**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한 사항이나 제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